도겐(道元)선사와 법명(法明)선사의 사법(嗣法)에 대하여

정제영 (도호쿠학원대학)

0. 시작하며

사법(嗣法)이라는 단어는 「법통(法統)을 사족(嗣續) 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법통(法統)을 사족(嗣續) 하는 것」이란, 법등(法灯)을 계승한다는[1] 것이다. 법등(法灯)은 불교에서는 부처가 설파하는 진리, 교설, 또는 부처의 가르침이 끊임없이 전해지는 역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선문(禪門)에서는 부처(석존釋尊)가 제자인 마하가섭(摩訶迦葉)에게 부촉한 정법(正法)이 스승에서 제자로 대대에 인증되어 전해져, 오늘날에 이르는 선문의 전통과 계보를 의미한다. 석존과 그의 제자들처럼 출가한 승려의 몸으로 철저하게 진리를 깨달아야 (철저대오徹底大悟) 사법(嗣法)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일본 조동종(曹洞宗)의 개조인 도겐선사(道元,1200～1253)가 간키(寬喜)3년(1231) 8월 32세 때부터 게이초(建長)5년(1253) 5월의 53세에 이르기까지, 선사의 설법의 집대성이자 대표적인 저작[2]인 정법안장(正法眼藏)의 이름도 석존과 마하가섭(摩訶迦葉)의 일화[3]에서 인용한 것이다. 또한 도겐선사는 정법안장(正法眼藏)에서 사서(嗣書)의 권을 저술하면서, 서두에 「부처는 반드시 부처에게 사법하고, 조사는 반드시 조사에게 사법한다고」 기록했듯이, 이 「정법(正法)을 부촉(付囑)」하는 사자상승(師資相承) 의 관계는 선종, 나아가서는 도겐선사에게 매우 중시되었다.

도겐선사의 제자는 많이 있으나, 사법(嗣法) 한 제자는 크게 세 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야마가타현(山形縣)의 사찰에서는 중국 선종의 사법(嗣法) 전통이 실제로 일본 땅에서 도원선사와 고려 출신의 승려인 법명선사(法明,?～138?)에 의해 재현되었다고 전해진다. 과연 그 모습은 어떠했을까. 본 보고에서는 도겐선사의 「사법」(嗣法) 과정과 에이헤이지(永平寺)에서 도원선사와 법명선사가 나누었던 문답을 살펴보고, 도원선사의 「사법」(嗣法) 과 한국과 일본의 선자(禪者)들의 교류와 대화를 조명하고자 한다.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선사상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규명하는 일환으로서 일본을 대표하는 선승(禪僧)인 도겐선사의 사상연구와 더불어 도호쿠 지방의 선문화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밝히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호쿠 지방의 조동종(曹洞宗)은 시조(始祖) 도겐의 인가를 받은 고려승 법명선사가 창건한 교쿠센지(玉泉寺, 현재는 玉川寺)를 비롯하여 각처에서 형성된 사찰이 지역과 밀착하고 변모하면서 구축되었다. 동북의 불교가 토착 제도화된 과정은 에이헤이지-중심부의 교리와 동북의 구래신앙과의 신학적 갈등과 조화가 중층적으로 조합되어 나타나는데[4] 이번 연구는 그 중 교리와 정통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고자 한다.

---

1) 駒澤大學編『禪學大事典』 p 443、 p 462 參照
2) その他に『普勸坐禪儀』、『永平寺淸規』などがあり、入寂後に弟子が編集した書物として『宝慶記』、『正法眼藏隨聞記』がある。
3) 拈華微笑「吾れに正法眼藏涅槃妙心實相無相微妙の法門有り、不立文字、敎外別伝、摩訶迦葉に付囑す」
4) 法明禪師の場合、留まろうとした禪師に不思議な老人、または神人が、永平寺に行かせることですこしその面を現れる。

2. 본 보고의 주요자료에 대하여

- 정법안장(正法眼藏): 도겐선사가 저술한 와문(和文)체의 법어집이다. 야마시로후카쿠사(山城深草)의 안요우인(安養院), 코우쇼우지(興聖寺), 에이헤이지 등 7곳에서 시중(示衆, 설법)된 것으로 모두 95권에 이른다.「변도화」(弁道話) 부터「팔대인각」(八大人覺)이 수록된 겐로쿠(元祿) 3년(1690)의 95권본이 본산판본의 저본(底本)이다.
- 일본동상연등록(日本洞上聯燈錄)[5]: 레이난슈죠우(嶺南秀恕, 1675～1752)선사가 쓴 서적으로간포(寬保)2년(1774) 간행된 조동종의 역사서이다. 30여 년에 걸쳐 자료를 모아 도겐선사 이하 조동종의 743명의 법맥을 설명하고 있다.

3. 선행 연구 확인

일본에서 법명선사에 대한 연구는 사토 히데타카(佐藤秀孝)[6]씨의 연구가 있다. 사토 씨는 교쿠센지연기(玉泉寺緣起) 조사 작업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적은 분량이지만 법명선사에 대한 기술이 남아있는 조동종, 임제종의 전기 자료와 법계도(法界図)를 취합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원래 본인의 저작도 존재하지 않아서 실존했던 인물이었는지도 의문시되었던 법명선사의 전모를 밝혀냈다. 사토 씨에 의하면 법명선사는 일본 데와 국(현재의 야마가타 현) 하구로마치(羽黑町) 타마가와(玉川) 교쿠센지 개산조(開山祖)이며, 에이헤이지에서 일숙각(一宿覺)의 일화를 재현[7]하였다. 도겐선사의 법손이자 조동종 문도로 인정되었으며, 송에서 수행한 경력으로 임제종의 선승으로도 기록된 스님이다. 법명선사는 고려에서 송나라로 유학을 떠나 임제종의 무준(無準,경산불감(経山仏鑑)선사 1178～1249)선사의 문하에서 수행[8]했다. 그 뒤에 일본에 도항하여서 데와 국에 머물렀다. 시기는 불명이지만, 에치젠(越前、현 후쿠이현) 에이 헤이지에 있던 도겐선사를 찾아가 문답 끝에 도겐선사에 사법(嗣法)하고 교쿠센지를 중심으로 데와 지방에 선풍을 일으켰다고 전해진다. 사법(嗣法)에 대해서 사토 씨는「어쨌든(참학이든,사법이든) 중국 승려의 적엔(寂円)(1207～1299)함께 고려의 승려 법명의 이름이 알려진 것은, 초기 조동종 교단의 국제적인 성격을 알기 위해서도 주목할 점이 있다.」[9]이라고 말했다.

4. 도겐선사의 「사법」(嗣法)

도겐선사는 남선종 육조혜능(六祖慧能,638-713)에서 동산양개선사(洞山良价,807-869), 천동여정선사(天童如淨,1163-1228)로 이어지는 조동종의 법맥을 이어받은 승려이다. 선사는 일본 조동종에서는 고조(高祖)로 칭해지고 가에이(嘉永)7년(1854년)에는 고메이덴노(孝明天皇)로부터 불성전동국사(佛性伝東國師), 메이지(明治)11년(1878)에 승양대사(承陽大師)의 시호를 받았다. 속성은 미나모토, 히에이산(比叡山)에서 출가하여 히에이잔 요코가와(横川) 슈료우곤인(首楞嚴院)에 머물며 좌주(座主)고우엔(公円)승정에게 출가했다. 엔세이지(園城寺) 쵸우

---

5)『玉泉寺緣起』(天台宗の學僧である 天宥(?～一六七四)が記述した網地紺糸に金泥字の一巻。)などを參考にしたが、 『玉泉寺緣起』の內容面に事實と認めにくい難い部分を除いた。(佐藤秀孝 (一九九四) 「出羽玉泉寺開山の了然法明について」 p 203)

6) 佐藤秀孝 (一九九四)「出羽玉泉寺開山の了然法明について －道元禪師に參じた高麗僧－」 駒澤大學仏教學部研究紀要52 p 201～256 佐藤秀孝 (二〇〇八) 「了然法明と三處の玉泉寺：永平寺道元に參じた高麗僧」 宗學研究50 p 63～68

7) 佐藤秀孝 「了然法明と出羽玉泉寺-道元・瑩山兩祖と關わった高麗僧-」 印度學佛教學研究43卷 (一九九四) p171 六祖慧能と永嘉玄覺禪師(六六五－七一三)の伝承である。

8)「嗣法」の有無に關しては臨濟宗と曹洞宗の意見が別れる。

9) 佐藤秀孝(一九九四)同書 p 222

리(長史) 승려 고우인(公胤)을 찾았고, 겐닌지(建仁寺)에서 에이사이(榮西)선사의 고족제자(高足弟子)인 묘우젠(明全)선사에게 사사하였다. 묘우젠선사와 함께 가정(嘉定)16년(1223년) 송나라로 건너가 천동산(天童山) 경덕사(景德寺) 의 여정선사 문하에서 수행하다 「신심탈락」(身心脫落,깨달음)을 경험했다. 오전 4시 승당에서 참선을 하던 중 도반을 경책하는 여정선사의 목소리, 참선이 「신심탈락」이라는 말끝에 활연히 대오하였다. 여정선사는 도겐선사에 사법(嗣法)을 내렸고 선사는 선망하던 인가장인 사서(嗣書) 를 받고 귀국하였다.

・사서(嗣書)(입적한 법안종 승려의 사서(嗣書)를 보고)
予道元、これらを見しに、正嫡の、正嫡に嗣法あることを決定信受す。未曾見の法なり。仏祖の、實感して兒孫を護持する時節なり、感激不勝なり。[10]

・신심탈락(身心脫落)(신심탈락, 깨달음의 순간)
「天童五更坐禪、入堂巡堂、責納子坐睡云、參禪者身心脫落也。 祇管打睡恁生。師聞豁然大悟。早晨上、方丈、燒香礼拜。天童問云、燒香事作麼生。師云、身心落々來。天童云、身心脫落、脫落身心。師云、這爾是暫時伎倆、和尚莫亂印某甲。童云、吾不亂印倆。師云、如何是不亂印底。童云、脫落々々。」[11]

・면주(面授)(스승과 제자가 불법의 구결을 말하며 불법을 전수하는 것)
「菩提達磨尊者にいたる。菩提達磨尊者、みつから震旦國に降儀して、正宗太祖普覺大師慧可尊者に面授す。五伝して曹溪山大鑑慧能大師にいたる。一十七授して、先師大宋國慶元府太白名山天童古仏にいたる。大宋宝慶元年乙酉五月一日、道元、はしめて先師天童古佛を妙高台に燒香禮拜す。先師古仏、はしめて道元をみる。そのとき。道元に指授面授するにいはく。佛佛祖祖面授の法門、現成
せり。これすなるち靈山の拈華なり、嵩山の得髓なり。黃梅の伝衣なり。洞山の面授なり。これは佛祖の眼藏面授なり。吾屋裏のみあり。餘人は夢也未見聞在なり。(……中略)
道元。大宋宝慶元年乙酉五月一日。はしめて先師天童古仏を禮拜面授す。やや堂奥を聽許せらる。わづかに身心を脫落するに。面授を保任することありて。日本國に本來せり[12]」

◆ 年表[13]

正治二年(1200) 교토에서 태어나다.(동년 이월、에이사이선사가 슈우후쿠지(壽福寺)개창)
建仁二年(1202) 부 미나모토 미치치카 사망(전년,신란상인(親鸞上人)이 호넨(法然)상인문하로)
承元一年(1207) 모친 사망(동년、전수염불금지、호넨 신란 상인 등은 유배。)
承元二年(1208)『구사론』을 읽다(교토대화재)
建保一年(1213) 사월,천태종 고우인에게 출가,계단원(戒壇院)에서 수계(전년,호넨상인 입적)
建保五年(1217) 가을,히에이산을 떠나 겐닌지의 묘우젠 선사에게 (전년, 에이사이선사 입적)
貞応二年(1223) 이월,묘우젠 선사와 입송.사월,경원부(명주)에 도착.칠월,천동산(天童山)입산
嘉祿一年(1225) 오월,천동산에서 여정선사 문하로(전년、무제선사의 적멸로 제산탐방)

---

10)『道元全書 一』『正法眼藏』「嗣書」 p 426「初祖摩訶迦葉は、釋迦牟尼仏に悟り、釋迦牟尼仏は、迦葉仏に悟る。」と書かれている。
11)『三祖行業記』(曹洞宗全書本)
12)『道元全書 二』『正法眼藏』「面授」 p 55~56、60
13)『道元辭典』、『禪學大事典』、『道は無窮なり』參照,

安貞一年(1227) 가을,여정선사에게 작별을 고하고 귀국. 겐닌지로 (보권좌선의(普勸坐禪儀))
寬喜二年(1230) 겐닌지를 나와서 후카쿠사로 (대기아 발생, 다음해 변도화 집필)
天福一年(1233) 홍성사건립 학도용심집(學道用心集)저술 겨울 에쇼(懷奘)선사가 찾아오다. 수문기(隨聞記) 필록 시작
寬元一年(1243) 칠월,에치젠으로 하향하다.(다음해、칠월、다이부츠지개당공양,9월 법당완성)
寬元四年(1246) 6월,다이부츠지를 에이헤이지로 개칭(호죠 토키요리 집권이 된다.)
宝治一年(1247) 8월,가마쿠라로 하향하다.(다음해, 3월,가마쿠라에서 돌아오다.)
建長五年(1253) 7월,에쇼선사가 에이헤이지 주직으로, 팔월 교토로 상경, 동월 28일 입적

5. 영평사에서의 법명선사와 도원선사의 '사법'에 대해

도겐선사는 조사가 조사를 증계(証契)하기에 전하는 불법의 종지(宗旨)는 부처와 부처가 아니면 밝힐 수 없기에 이른바 십지등각(十地等覺)의 보살일지라도 가늠할 수 없다고 보았다.[14] 도겐선사의 사법(嗣法)은 사자상승의인 선종의 전승·전통을 엄격히 지키고 있었으나, 법명선사는 도겐선사의 사법(嗣法)을 무사히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장소는 도겐선사가 만년을 보낸 에이헤이지이며 시기는 다이부츠지가 에이헤이지로 개칭된 간겐(寬元)4년(1246년) 이후, 밤에는 좌선이 행해지고 있었기에 낮 시간으로 추정된다.

짧은 문답 속에서 법명 선사가 고려 출신이라고 말하자 도겐선사는 걸어온 「길」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선사는 적은 적(記)이 없다고 대답했다.[15] 이후 법명선사는 쌀이 밥이 되는 과정에 비유하여 중생에서 부처로, 부처에서 중생이 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여지고, 도겐선사는 말년에 임제종에 대한 엄격한 발언과는 달리 임제종 무준(無準,経山仏鑑,178-1249) 선사의 문하에서 수학한 법명 선사를 높이 평가했다. 법명선사는 본인의 깨달음을「스승이 증명해 주어서 감사하다」[16]며 인가에 대한 감사의 예를 올렸다. 다시금 도원 선사가 법명 선사에게 「화연(化緣)할 때가 되었으니 신속하게 옛 땅으로 돌아가 크게 현지(玄旨)를 듣고 오래도록 미래세에 중생들을 이롭게 하라」[17]고 자기(自己)의 수행뿐만 아니라 뭇 생명들을 위한 이타행(利他行)을 권하였다. 이 부분에서도 법명 선사가 도원 선사에게 「사법」(嗣法)하였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리하여서 도겐선사의 교시에 따라 법명선사는 야마가타현 조동선의 초조(初祖)가 되었고, 지역의 성지로 존숭받던 하구로야마(羽黑山)의 입구인 젠켄무라(善見村) 에 선사를 건립하고 선종을 도호쿠지방에 전하게 된다.

6. 맺음말을 대신하며

도겐선사의 입적 후, 조동종 네번째 조사인 케이잔죠긴(瑩山紹瑾)선사가 전광록(伝光祿)에서 십지(十地)의 성인이 구름·비 같은 설법을 해도, 부처님께 질책을 받는다고 남겼듯이, 사법(嗣法) 과사서(嗣書) 발행의 전제 조건인 득도에 관한 도겐선사의 견지는 선사의 사후에

---

14)『道元全書 一』『正法眼藏』「嗣書」p426 「この道理の宗旨は、仏々にあらざれば、あきらむべきにあらず、いはんや十地等覺の所量ならんや。」鏡島元隆『道元禪師の引用経典・語錄の研究』 木耳社 1965 p215~260 出典は不明。ただし、瑩山禪師(一二六八－一三二五)が著述した『伝光祿』引用の出典では、『大般涅槃經』、『雲門匡眞禪師廣錄』

15) 元問う、「甚處の人ぞ。」 師曰く、「高麗國。」 元曰く、「路は少ぞ」、 師曰く、「途程を記せず。」佐藤 同書 p219 を引用。讀み下し文は佐藤氏のものを引用した。原文： 「元問甚處人師日高麗國元日路多少師日不記途程」

16)『日本洞上聯燈錄』「師曰謝師証明」道元禪師の「吾が這裏に箇の虛頭を容れず。」の句に對する感謝である。原文：「日吾這裏不容箇虛頭」

17)『日本洞上聯燈錄』「化緣時至速旧趾回舊大闡玄旨永利濟未來際」

도 법손들에게 상속되었다. 선사가 선종 특유의 부처와 조사들의 선종의 역사관에 확신을 갖고 여정 선사에게 「사법」(嗣法)하고, 그 법통은 다시금 법명선사에 전해졌다. 도겐선사도 불성(仏性)에서 인용한 「사람에게 남북이 있어도, 불성에는, 남북이 없다」[18]는 혜능선사의 고사처럼 국적, 신분, 지금까지 수학 경로를 불문하고, 오로지 신심탈락, 대오의 경지만 본 것이었다.

본 보고의 차후 과제로서 방대한 저작 대부분 남아 있는 도겐선사와 달리 법명선사의 자료가 매우 적다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토호쿠의 사원의 답사가 필요하다는 것과 선행연구가 지적한,

13세기 고려의 시대적 배경으로부터 한 발 더 들어가서, 고려에서 시작한 법명선사의 여정과 경로를 모색하여, 도겐선사를 만나기까지의 선사의 인물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 등이 있다고 본다.

18)『道元全書 一』p23